

한국사회의 에이즈 그 현주소를 말한다.

본문에 소개하는 자료는 2007년도에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용역으로 실시된 [2007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 조사(서울대학교 병원 이진석 교수)연구 결과이다. 정부에서는 2005년부터 격년으로 전국민 대상 에이즈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2년간에 걸쳐 변화 정도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국내 에이즈 예방 전략 수립에 좌표를 잡아갈 계획이다.

글 편집실



'에이즈' 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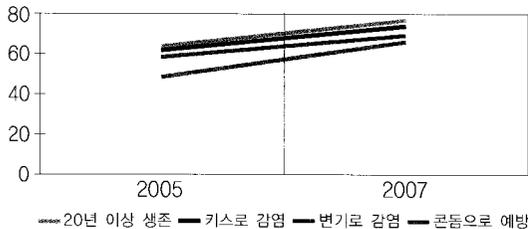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표상은 여전히 부정적(8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죽음, 분치병, 두려움 등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드러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성병, 성관계, 불륜 등 부도덕하거나 불결한 성관계로 표상되는 경우가 그 뒤를 이었다.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연상이나 이 질병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연인이 소수에서(3.1%) 나타났을 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근거에는 타인으로 인해 에이즈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두려움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

에이즈에 대한 지식은 2005년 당시 조사보다 정답률이 약 10~20% 가량 향상되었다. 전반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에이즈에 대한 지식 문항 정답률 추세



에이즈에 대한 태도 및 민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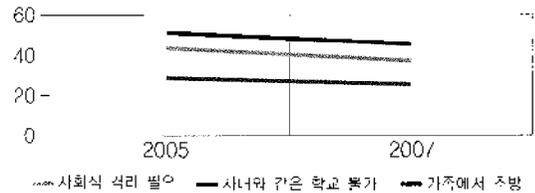
가족 중에 에이즈 감염인이 있을 경우 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24.3% 그럴 수 없다고 답하였고, 자녀가 에이즈 감염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도록 허용하겠는가 하는 문항에 대해 44.4%가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감염인을 사회와 격리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3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과거

본 조사 연구는 지난해 9월 한달간 전국 19~59세 성인 남녀 1,087명 (신뢰수준 95+3%P)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는 향상되는 추세이며, 에이즈에 대한 차별의식은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에이즈 지식 수준이 낮은 반면 차별의식이 높고 예방활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의 연구와 비취볼 때 조금씩 에이즈에 대한 차별의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에이즈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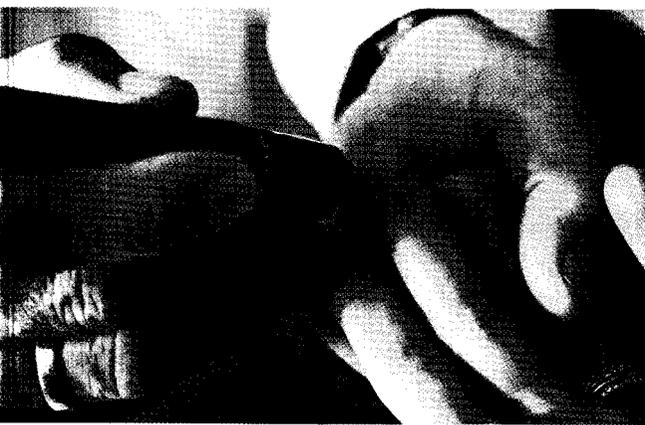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차별의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가별 에이즈에 대한 차별의식 정도

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가족에서 추방	-	-	-	24.3
직장에서 추방	18.6	8.0	-	26.7
자녀와 같은 학교 불가	14.9	-	20.7	44.4
사회적 격리 필요	-	-	5.6	36.5

한편 자신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61.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2005년 조사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예방 및 관리의 주요한 방법론으로 추천되는 것은 자발적인 에이즈 검사이다. 자발적인 검사 활성화는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당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에게 전파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과 비교할 때 매우 뒤쳐지는 에이즈 수검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번 연구 결과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결과(41.5%)보다 에이즈에 대한 민감성이 비교적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에이즈검사

평생 동안 에이즈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전체 14.7%(남자 20.0%, 여자 9.5%)가 받아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지난 1년 동안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6.9%였다. 국가별 에이즈 평생 수검율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외국에 비해 낮은 수검율을 보였다.

국가별 에이즈 검사 평생 수검율

	미국 2001년	영국 2000년	일본 1999년	중국 2007년
남	45.2	32.4	40.4	20.0
여	27.8	31.7	30.4	9.5

지난 1년간 에이즈 검사를 받은 장소는 대부분 병원(77.3%)이었으며, 검사를 받게 된 이유는 대부분 직장 건강검진(60.0%)인한 것이었다.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도 26.7%에 달했다.

에이즈 검사를 의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는 25.2%에 그쳤으며, 익명검사 기관이 있는 경우 에이즈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5.8%에 그쳤다.

성관계 경험 및 태도

조사대상의 성관계 경험률과 외도 경험률은 각각 77.9%와 9.8%로 나타났다. 인구학적 특성상 남자일수록, 미혼일수록 외도 경험률이 높았다.

지난 1년간 배우자 이외의 외도 대상자와의 성관계시 콘돔을 매번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33.7%가, 고정적인 성 상대자와의 성관계 때는 9.1%가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도 대상자보다 고정적인 성상대자와의 콘돔사용률이 더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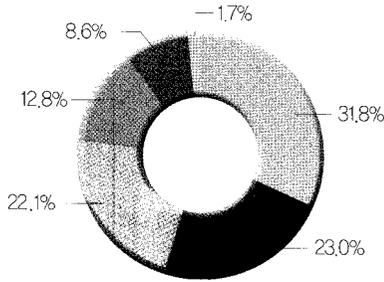
특히 연령이 낮고 미혼자 일수록 콘돔 사용률이 높았는데, 이는 미혼자 대부분이 성과 생식 보건에 대한 정보가 나이는 세대보다 더 많으며, 피임과 성병 예방을 위해 콘돔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콘돔사용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피임이 필요 없거나(31.8%),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거나(23.0%)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22.1%) 때문이었으며, 남자의 경우 본인이 좋아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여자 응답자 보다 더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콘돔을 피임의 수단으로

콘돔 사용하지 않는 이유



- 피임이 필요없어서
-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상대편 또는 내기 원치 않아서
- 다른 피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 콘돔을 사용하지 않음
- 콘돔이 없어서

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국의 콘돔 사용률과 비교해도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전국민 조사결과 46%가 항상 콘돔을 사용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콘돔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겨우 15%에 그쳤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콘돔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44.6%에 달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콘돔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콘돔 구입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재활동이 필요하다

국가별 콘돔 사용률

항상	자주	가끔	거의 사용하지 않음
46	17	12	15
25.0	20.4	15.6	38.7
33.7	10.8	10.8	44.6

일반인의 정보 획득 및 교육

학교나 직장 등에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1.4%였고, 에이즈 예방 캠페인 또는 공익광고를 본 적이 있는 경우는 72.2%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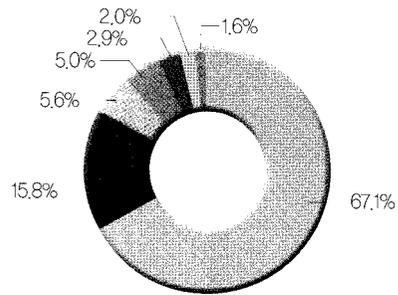
2005년 조사결과 에이즈 예방을 위한 광고인지율은

55.3%로 이번조사에서 더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에이즈에 정보를 얻는 방법으로는 TV 또는 신문이 67.1%, 인터넷이 15.8%로 대부분 대중 매체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도 건강관련 이슈의 경우 일반인들은 대중 매체를 통해 가장 먼저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에이즈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였다.

에이즈에 대한 정보 획득장소



- TV 또는 신문
- 인터넷
- 서식
- 주변사람
- 위로기관
- 동사구수 또는 구청
- 기타

연구진은 에이즈에 대한 행동감시체계(behavioral surveillance system)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것을 통해 우리나라 HIV 유병률의 변화를 설명하고 HIV 유행에 대한 조기 경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자료는 효과적인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설계와 방향 제시의 근거가 되며,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의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과거 몇 년간 실시된 일반 인구 또는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한 에이즈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에이즈 예방을 위한 행동감시체계의 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